

2008. 12. 18(목)

제178회 속초시의회 제2차 정례회

## 5분 자유발언서

－ 경기부양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 촉구 －



속 초 시 의 회  
(김병욱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의 5분발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10만 시민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하여 올바른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동료의원의 재정건전화를 위한 시정 질문은 의회와 집행부가 동반자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공감대 형성 및 실천하는데 노력하고자 하였으나 열악해진 재정운영으로 많은 이견만 도출하였던 아쉬움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2009년도 당초예산을 심의하면서 우리시의 주요정책인 관광사업에 대한 미래를 위한 비전 수립예산 반영이 없어 미래에 대한 준비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에 있어서 성과분석 등이 이뤄지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반복적 예산편성과 원칙과 기준이 없는 소모성 예산편성에 대해 집행부의 인식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금과 같은 전 세계적 경제 불황속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간접적 경제유발 효과가 있다는 행사예산과 방임적 예산으로 보이는 각 단체별로 나눠주기식 예산에 대해 Top-down제 식의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맞벌이 부부 어르신 보살핌 등을 위한 사회적 사업에 대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저소득층과 시민들의 생활안정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는 적은 인구에 관광산업에 의존한 산업구조로 되어 있어 경제 불황에 따른 어려움이 있지만 전 시민들의 뼈를 깎는 고통분담은 물론

채용생 시장님의 용기있는 용단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1,200만의 관광객이 찾는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희생을 통해 낭비적 요소를 제거하여 관광기반 시설 확충과 10만 시민이 잘 살수 있는 살고싶은 도시건설을 하여 미래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을 어린아이·어른·여성·남성·장애인·비장애인 할것없이 속초시민 모두가 손에 손잡고 오늘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선 지난 시정질문에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예산과 각종스포츠 마케팅행사 비용은 관광도시의 특성에 맞는 투자성 경비라 하셨는데 이에 본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 현재를 살아가는 책임자의 지방재정에 대한 로드맵 역할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투자성 축제라 하면 축제를 통해 관광객을 우리시로 불러들이느냐가 관건이 되어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깊이 통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대한민국 음악축제는 소비를 해야 할 저녁시간에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을 엑스포광장에 묶어놓아 소비를 위축 하고 있으며, 각종 행사는 무리한 유치경쟁으로 경기단체의 살림을 살찌워주는 현실이지 않나 냉철하게 한번 뒤돌아 봐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한해 40억원이나 집행되는 축제와 행사 비용을 해양 관광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자연관광과 체험 관광이 어우러져 주간에는 우리시의 명소에 대한 관광을 즐기고

야간에는 볼거리를 찾아 숙소를 벗어나 도심지로 관광객을 불러내야 할 것이라 생각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계획들이 이미 속초의 관광 10년 마스터플랜에 담겨져야 함에도 예산 타을 하며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307-02), 민간행사보조(307-04), 사회단체보조(307-05) 등 중앙정부에서도 선심성으로 분류하여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데 주요 지표로 삼고 탑-다운제, 일몰제등의 제도적 장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올해 또한 증가하는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는 원칙에 입각하여 이번 기회에 개혁적인 신념으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성과분석도 없이 반복·연례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단체 운영비, 경상보조는 과연 속초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인지, 행정과 사회단체에서는 깊이있게 고민하여 예산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거동 불편한 어르신과 맞벌이 등으로 양육이 어려운 가정 등 사회안전망에 도움을 주어야 할 사회적 사업의 증액과 대량 실업사태가 우려되므로 청년과 여성 일자리 등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 예산의 증액이 요구되어집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도 성과적으로 운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서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여러가지 일자리 사업을 시책사업과 연관하여 영랑호변을 꽃으로 덮어 관광자원화 하던지, 청대산에 야생화 단지를 만들어 볼거리를 만드는 등 성과있는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상적 경비가 시 수입을 초과하고 있으며, 선심성·일회성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직시 못하고 여전히 관행대로 더 많은 단체에 예산을 어떻게 줄까 고민하는 지방행정의 반성 없이는 우리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시장님의 남은 임기동안 경상경비 절감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예산을 선택과 집중하는 등 속초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